

활옷의 形態와 紋樣에 관한 研究

(現存 遺物을 中心으로)

손 경 자

1. 머릿 말	2) 龍簪
2. 활옷의 由來	3) 족드리와 花冠
3. 활옷의 色彩	7. 刺繡된 무늬의 考察
4. 활옷의 구성	1) 蓮花
1) 앞길	2) 牡丹
2) 뒷길	3) 鳳凰
3) 소매	4) 鴛鴦
5. 實物의 比較	5) 나비(蝴蝶)
6. 부속품	6) 十長生
1) 냉기	8. 맺음 말

1. 머릿 말

우리나라는 地理적으로 中緯度地帶에 位置한 半島의 나라로써 四季節이 分明하게 區別되는 까닭으로 옛부터 衣食住에 對한 執念이 그 어느 나라에 比해 強하였음은 遺物이나 史書를 通해 觀察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自明한 事實이다.

특히 衣服은 사람이 삶을 營爲함에 있어 가장 主要한 것으로써 季節에 따라 服地의 選擇과 만듦새의 差를 두는가 하면 또한 身分에 따라 옷의 매무새와 裝身具의 差가 있었음을 볼 수 있는 바이다. 아울러 看過할 수 없는 事實은 三國時代는 비록 國土는 分離되었다 하나 衣服制度는 大差가 없었음이 分明하고 더우기 統一新羅以後로는 비록 外勢의 干與가 없지는 않았으나 獨自的이었음이 分明한 것이다. 本稿는 特히 衣服中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여겨졌던 華衣 即 활옷에 關한 것으로써 이는 멀리 高麗王朝로부터 朝鮮朝에 이르는 동안 위로는 王妃의 禮服으로부터 아래로는 一般民의 婚禮服으로까지 넓이 活用되었으나 漸次 新文化의 소용돌이 속에 그 姿態가

煙滅되어 가는 此際에 이에 對한 옛 文化를 回顧하는 微衷에서 그동안 筆者가 蒐集한 資料를 根據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2. 활옷의 由來

원래 활옷은 공주의 大禮服으로서 宮中 禮服 가운데서도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一般 서민들에게는 혼례당일에만 입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었다. 이 활옷은 唐衣와 더불어 옛날 신라 때부터 着裝한 것으로 전한다. 신라는 백제 高句麗의 強國을 꺾고 統一의 大業을 성취하려 할즈음 김춘추를 당나라에 보내어 冠服制度를 들여와 먼저 文·武百官의 制度를 따르고, 이어 제30代 文武王 4년에 이르러 女子의 衣服制度도 개혁하기에 이르렀다.¹⁾

그 후 高麗때의 일로 宋나라 사신 劉逵와 吳拭이 고려에 왔을 때 宴會에 招待되어 倡女들이 입고 있는 濶袖衣에 色線帶와 大裙을 보고 「여기 三代의 服飾이 다 있음은 意外의 일이라」면서 감탄하였다 한다.

이 三代란 隋, 唐, 宋을 일컫는 말로 宋에서

1) 高麗史 七十二 志卷 二十六, p.679.

는 이미 없어진 前代의 제도가 아직 고려에서는 남아있었다는 뜻이다.²⁾

또한 高麗仁宗元年(1122) 宋使의 一員으로 高麗를 다녀간 徐兢이 쓴 「高麗圖經」에 依하면 王妃는 大紅衣를 입고 이에는 繪繡를 놓았으며 國官庶民의 妻는 이를 입지못한다 하였다.

이와 같이 傳來된 활옷은 오랜 歷史를 通해 근세에 이르는 동안 多분히 제도면에서 우리의 것으로 風俗化하여왔다.

그 실례로 원삼에 족두리나 활옷의 花冠을 들 수 있는데 원삼의 족두리는 고려 때에 元나라에서 활옷의 화관은 통일신라 시대에 唐나라에서 들여온 制度이다.

활옷은 紋樣 內容에 있어 內命婦와 外命婦의 差異가 있었다 한다. 內命婦 활옷의 紋樣은 牡丹, 蓮, 水, 石, 不老草, 鳳, 蝶, 天桃, 호리병, 雷紋, 小輪花 等 다양한 紋樣으로 구성되어 있다.

內命婦란 궁중에서 봉직하는 女官으로서 品階가 있는 者를 말하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嬪, 正一品(敎命을 받은 者는 品階가 없다.)

敎命이란 王妃를 책봉하는 王命을 말하는 것이며 本是 王의 正夫人인 王妃는 品階가 없으므로 嬪이 王妃로 승격하면 品階가 없게 된다.

貴人 : 從一品

昭儀 : 正二品

淑儀 : 從二品

昭容 : 正三品

淑容 : 從三品

昭媛 : 正四品

淑媛 : 從四品

尙宮 이하는 宮人職에 속한다.

尙儀 : 正五品

尙服·尙食 : 從五品

尙寢·尙功 : 正六品

宮尙·正尙記 : 從六品

典賓·典衣·典膳 : 正七品

典設·典製·典言 : 從七品

典贊·典飾·典藥 : 正八品

典燈·典彩·典正 : 從八品

秦宮·秦商·秦角 : 正九品

秦變徵·秦徵·秦羽秦變宮 : 從九品

※ 宮人職 從四品 淑媛은 실상인즉 王의 副室로서 宮中에서의 職務는 없으나 正五品 尙宮 이하는 궁녀로서 각각 그 명칭이 表示하는 바와 같은 職務가 있다.

世子宮

良娣 : 從二品

良媛 : 從三品

承徽 : 從四品

昭訓 : 從五品

守閨(以下는 宮人職에 속한다.)

守則 : 從六品

掌饌·掌正 : 從七品

掌書掌縫 : 從八品

掌藏·掌食·掌醫 : 從九品

外命婦란 宗親의 女, 그들의 妻 및 文武官의 妻로서 封爵을 받은 者. 夫人의 封爵은 그 남편의 官職에 좇는다(妾의 所生女 및 生前에 改嫁한 者는 封爵하지 아니하며, 夫의 死後에 再嫁한 者는 이미 下賜한 封爵을 剝奪한다).

王妃의 母 王世子의 딸 및 宗親으로서의 二品 이상인 者의 妻는 모두 品號를 쓴다.

宗親의 妻

府夫人 : 大君의 妻, 正一品

郡夫人 : 王子 君의 妻, 從一品

縣夫人은 正 從二品

愼夫人 : 正三品 堂上官

愼人 : 正 從三品

惠人 : 正 從四品

温人 : 正 從五品

順人 : 正六品

文武官

貞敬夫人 : 正 從一品

貞夫人 : 正 從二品

淑夫人 : 正三品 堂上官

淑人 : 正三, 從三品

令人 : 正四品 및 從四品

恭人 : 正 從五品

宜人 : 正 從六品

安人 : 正 從七品

端人 : 正 從八品

孺人 : 正 從九品³⁾이다.

2) 三國史記 卷33 雜志2, 色服條

3) 大典令通 卷六一 史典 23-24 참조

3. 활옷의 色彩

우주간에 운행하는 原起素는 만물의 주성분이 된다는 五原素를 五行이라 하고, 金, 木, 水, 火, 土 즉 白, 靑, 黑, 赤, 黃으로 色彩에 뜻을 두었다.

또한 동양 철학에서 男女를 남색 홍색으로 色彩를 정한것에 근본을 두고 우리나라 혼례식에서는 청실 홍실이 서로 결혼을 뜻하는 것으로 一般化 되어 청실 홍실을 사주에 감아 놓는 것과 폐백보에도 시 아버님에 禮物을 남색보, 시 어머님 것은 다홍색보를 사용한 것과 함의 채단에 남치마 홍치마 감을 넣는것 등 혼례에서 다양하게 使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原理에서 흘러 내려온 풍습이다.

다홍색 緞에 蓮花, 牡丹, 十長生 등을 繡 놓은 활옷에는 남색으로 안을 바쳐서 만드는 것은 二姓之合 百福之源의 뜻을 나타 낸 것이다.

활옷 속에 입는 다홍색 치마에 노랑색 삼회장 저고리는 모든것이 흙에서 성장 된다는 原理를 生과 成에 바탕을 두어 미혼 여성의 예복의 색으로 정하였다.

4. 활옷의 구성

1) 앞 길

앞길은 뒷길보다 약 20cm 짧고 앞을 여미는



<사진 1> 앞면

形態가 아닌 直領으로 고대를 막고 동정을 단다. 동정 아래에는 끈을 달아 벌어지지 않도록 뿔 수 있게 되어있다. 刺繡에 있어서도 앞길 위 양쪽으로 동자가 蓮花를 들고 外向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牡丹 꽃과 잎을 刺繡하고 壽如山 富如海 등의 글씨를 繡 놓은 것도 있다.

양쪽 밑으로는 長壽와 吉祥을 상징하는 물결 바위 不老草, 鳳凰, 牡丹 등을 刺繡 한다.

2) 뒷 길

등술 바느질을 하지 않는 옷은 활옷 뿐인데 이것은 등판에 많은 繡플 놓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예복은 진동선에서 7~8cm 소매 쪽으로 내려오도록 마름질하나 활옷만은 진동선에서 소매를 이으도록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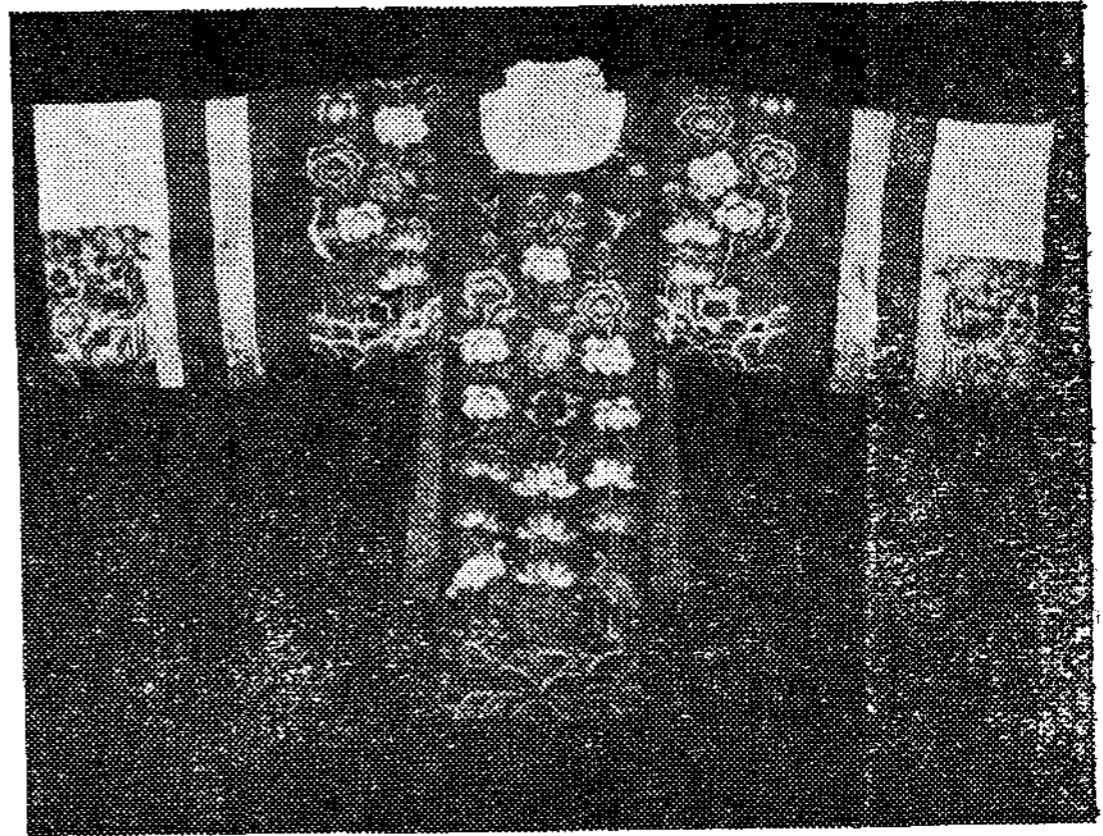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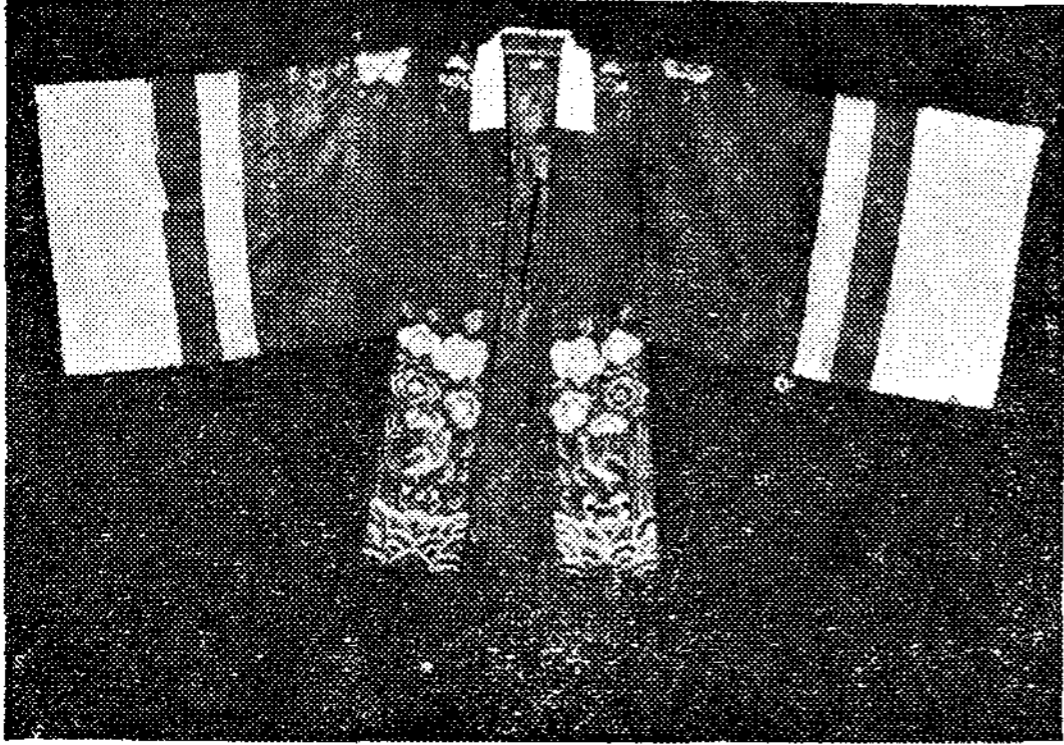


<사진 2>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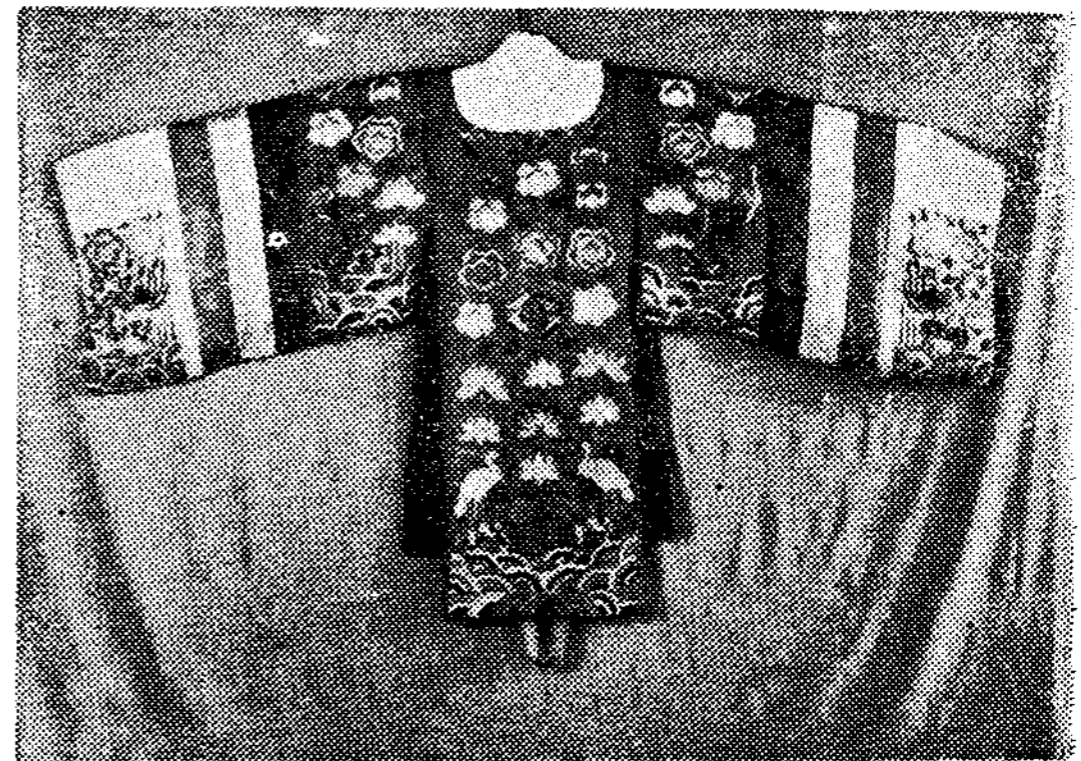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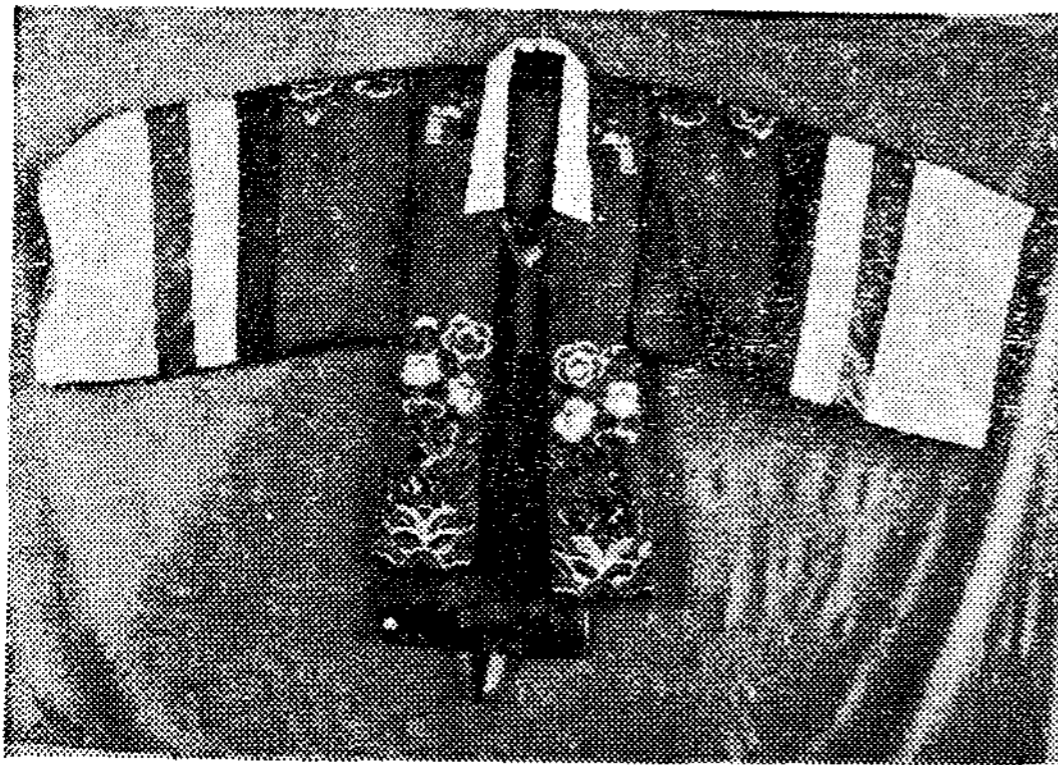
길이는 지면에서 약간 올라 갈 정도이나 아래 도련 중앙에 적은 고리가 있다. 수모가 옷을 부액하기 위하여 고리를 잡아 준 것이 아닌가 한다.

양 옆은 진동 아래에서 부터 갈라져 上下가 별차 없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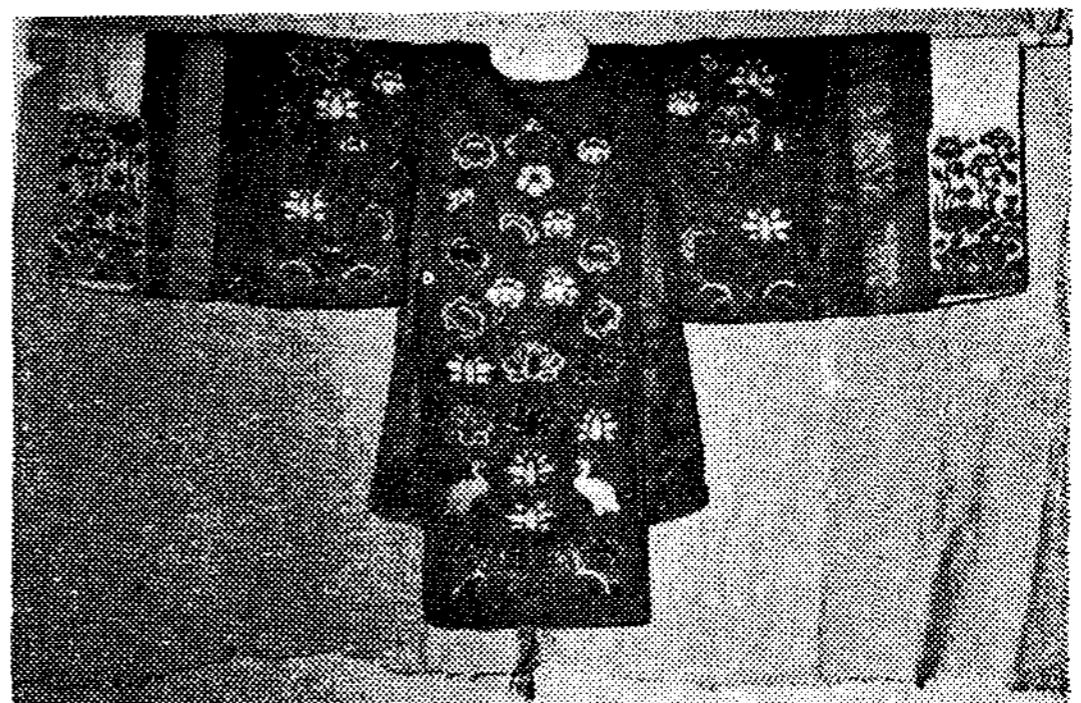
刺繡의 무늬는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매우 多樣的 편이나 양 어깨에 二姓之合 百福之源이라고 繡 놓았으며 아래 단 쪽에는 대부분 물결에서 부터 시작하여 바위에 不老草 蓮花 牡丹 등을 잎과 줄기를 연결하여 뒷판 전면에 繡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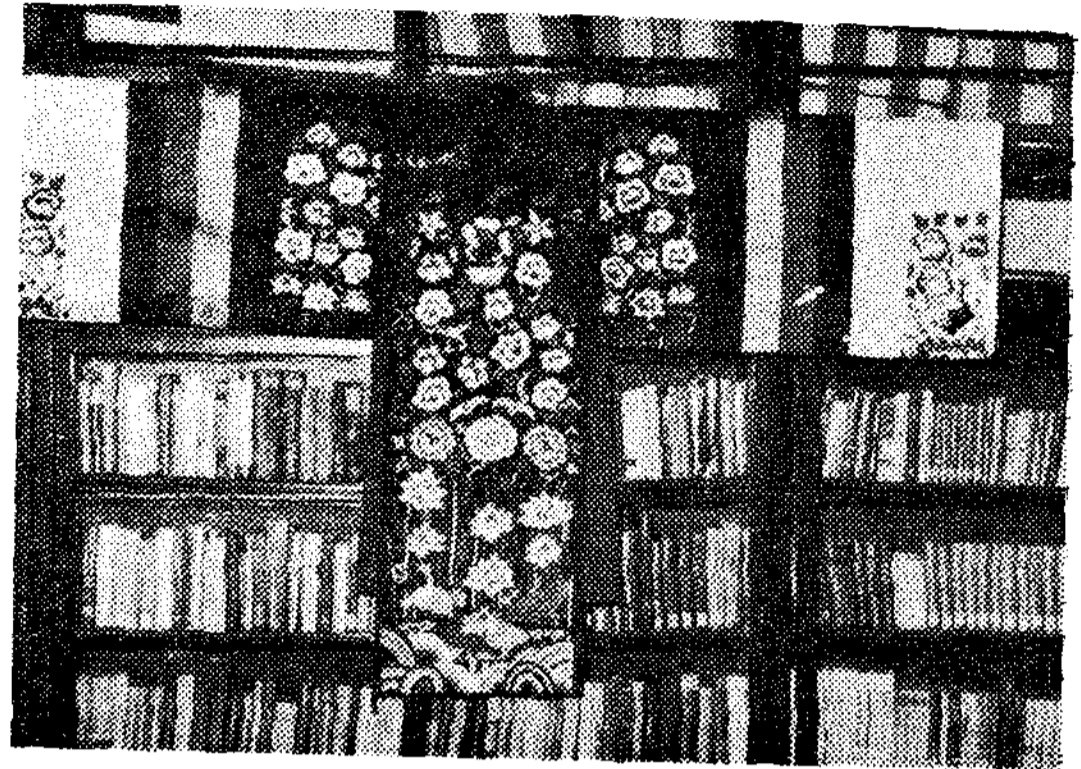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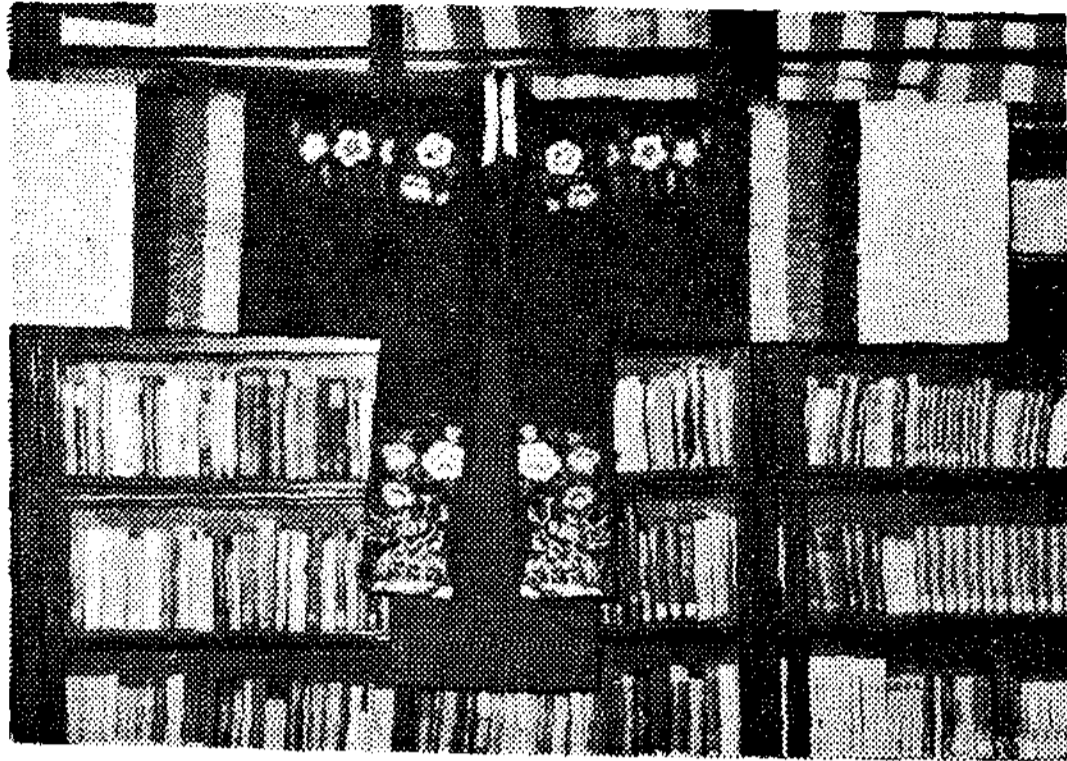
<사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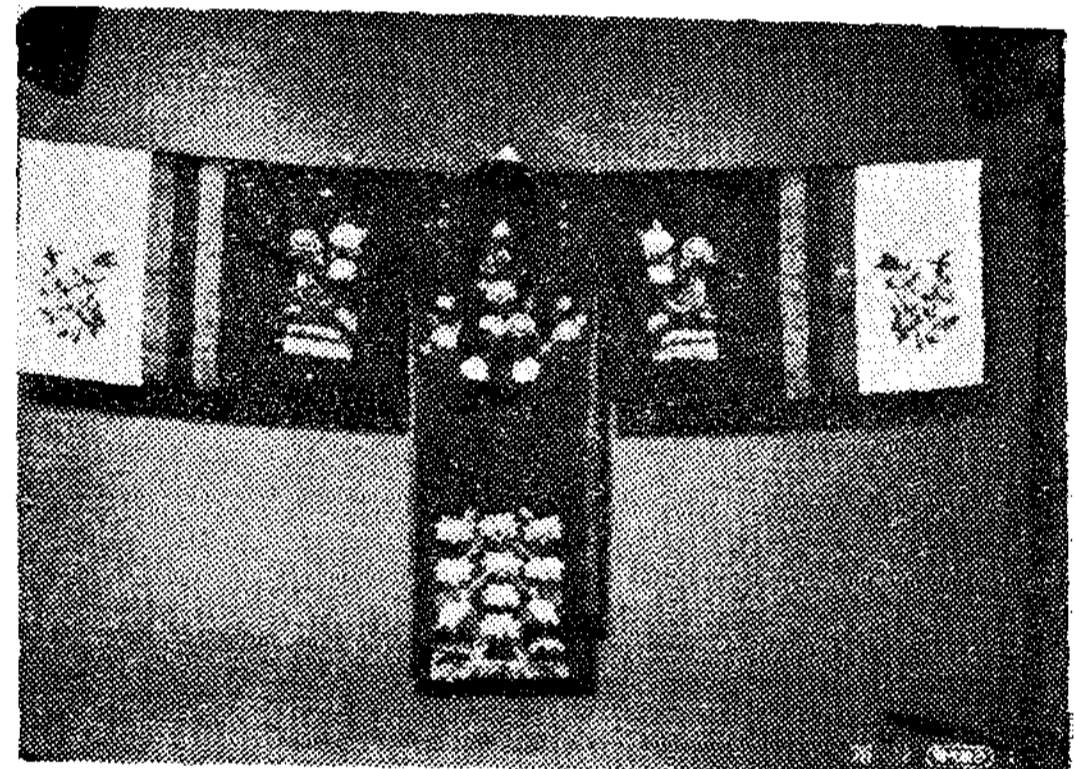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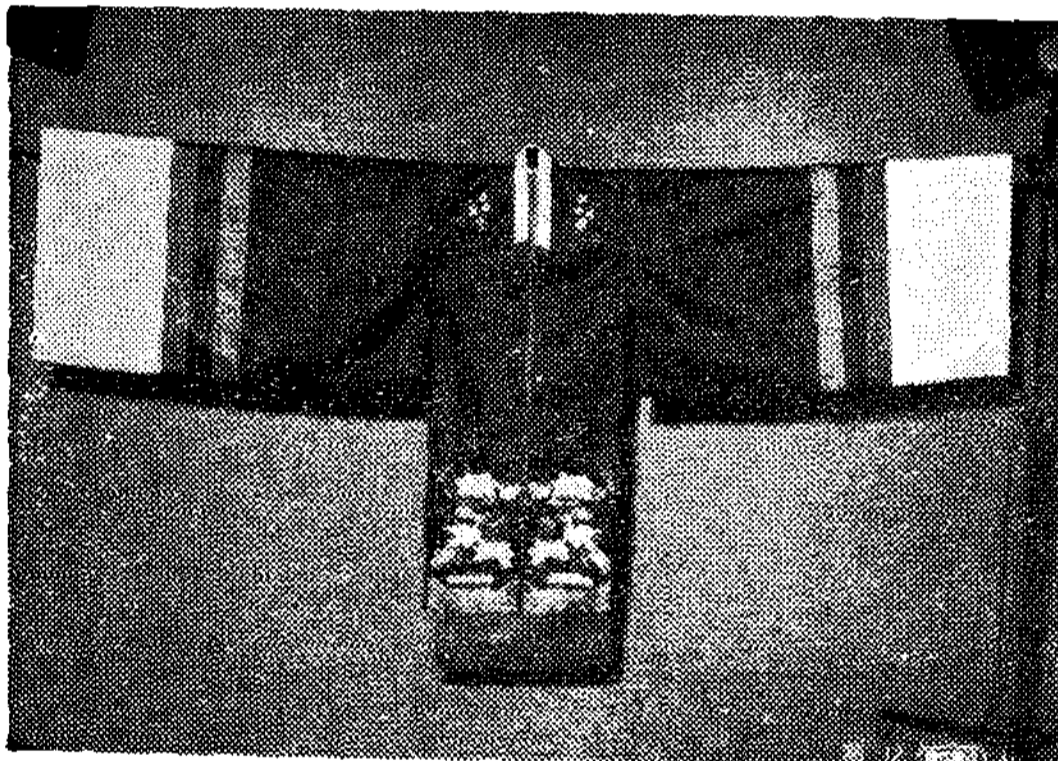
<사진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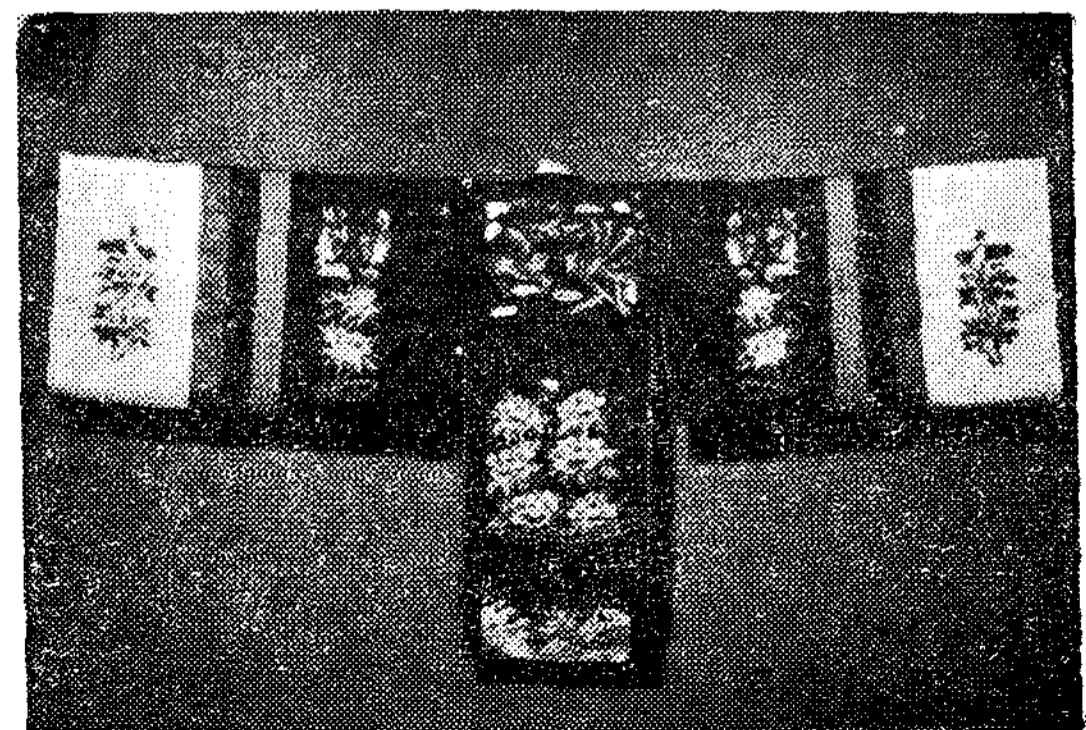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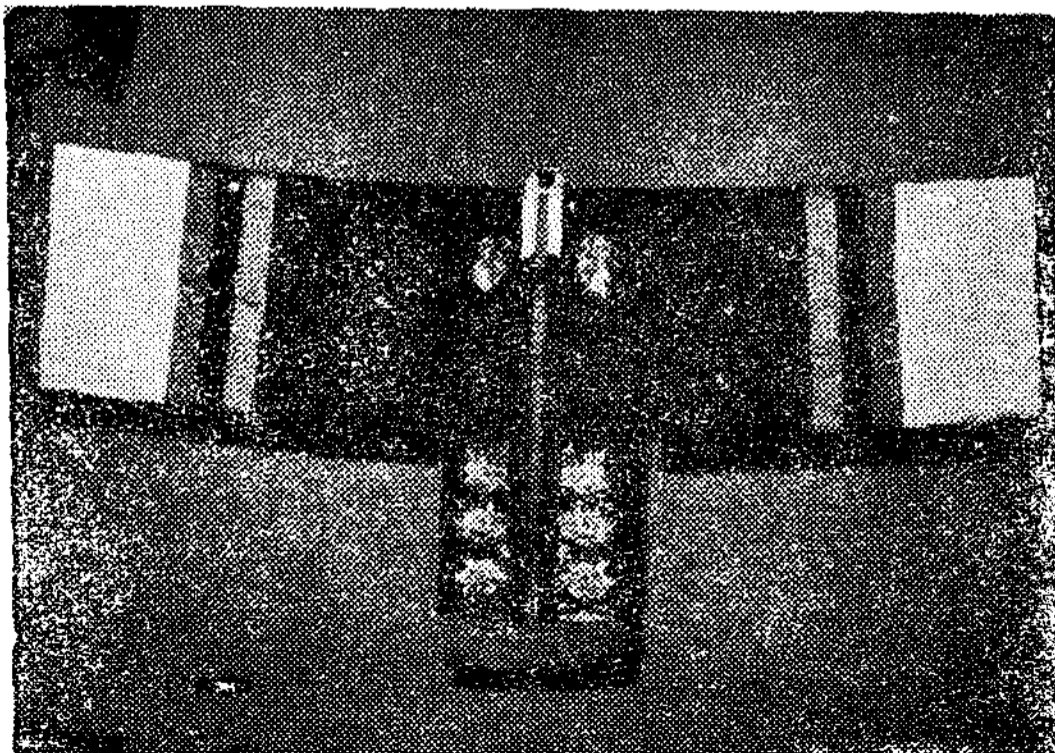
<사진 ③>



<사진 ④>



<사진 ⑤>



<사진 ⑥>

3) 소 매

바탕색은 길과 같으며, 양 소매 뒷판에만 길에 있는 素材의 繡를 진동 가까이 놓고, 黃, 藍, 紅의 색동을 달고 한삼을 단다. 원삼에는 한삼을 홀으로 달되 활옷 한삼에는 繡를 놓으므로 안을 든다.

옛날것의 실물에는 안에 흰 광목을 대고 간지를 대었다. 그 당시 緞이 얼마나 귀(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實物의 比較

약 100여년 전의 활옷과 근래에 만들어진 몇 점을 가지고 치수와 紋樣을 살펴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약 100년전 것인 ③의 刺繡 方法이나 실의 꼬임과 紋樣의 素材가 ①, ②와 同一한 것으로 보아 같은 年代로 짐작할 수 있다.

2) 치수는 근래것이 길이와 화장이 길어지고 배래기와 한삼이 넓어져 예복으로서는 더욱 品位가 있다.

3) 근래 활옷의 동정은 3cm 나비로 달았으나 옛날것은 동정 겸 뒤 등바대를 둥글게 달아 남자에서 더러움이 타는 것을 防止 하였으니 現代 女性들의 머리가 짧아진 것 과도 關係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옛날 것에만 뒷길 아래 중앙에 고리가 달려 있으나 진동 아래 大帶를 채우는 고리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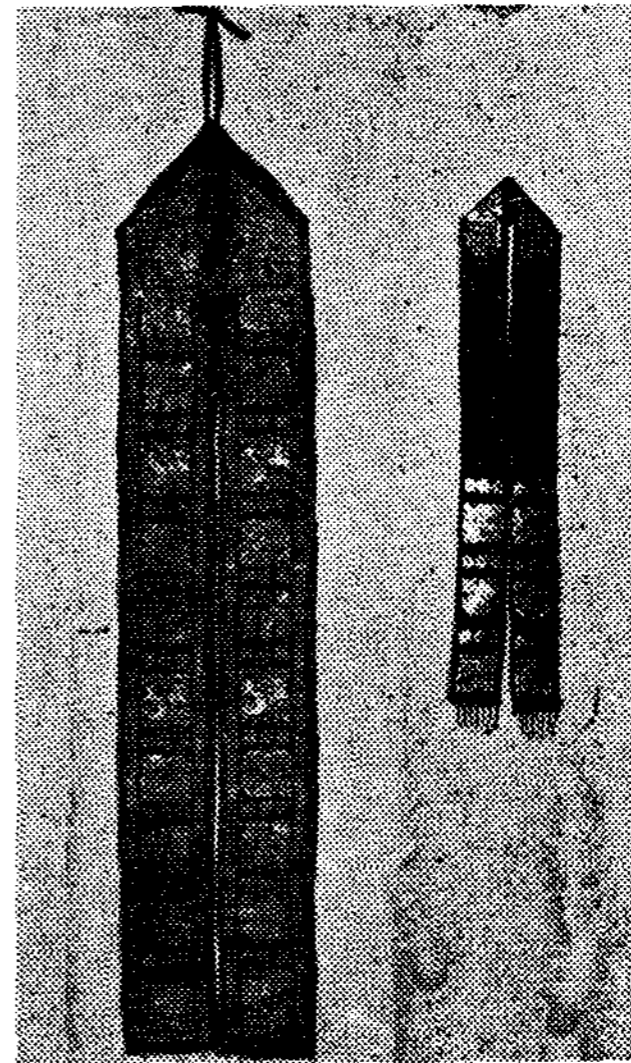
④, ⑤, ⑥이 치수와 紋樣의 素材는 비슷하나 ⑥은 牡丹을 主材로한 도안이다.

활옷을 만들 때 紋樣은 옛것을 그대로 옮겨 옛 풍습을 그대로 繼承 하고자 하는 점이 많아 우리 옛 意識에 대한 존엄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 부속품(附屬品)

古典衣裳에는 그 옷에 해당되는 부속품이 있다. 활옷에 쓰이는 다음의 부속품들을 알아 보 고자 한다.

1) 땡 기



<사진 ⑦>

<치수 비교표>

번호	항 목 소 재	치 수	뒷길	앞길	품	화장	진동	배래	색 동			한삼	고 지		비 고
									남, 황, 홍	황, 남, 홍	폭, 길이				
①	고려대 박물관 소장 <943>		122	100	49	98	26	53	8 8 8	22.5	2, 26	100년전			
②	" <944>		105	94	40	91.5	27	48.5	8 8 8	22.5	3, 20	"			
③	손 경 자 소장		121	94	46	97	25	55	황 남 8 8	18	2.5, 42	"			
④	이화여대박물관소장		133	113	47	117	35	55	황, 남, 홍 8.5 8.5 8.5	34	"	25년전			
⑤	손 경 자 소장		130	114	44	125	25	58	황, 홍, 남 6.5 6.5 6.5	34	"	근래			
⑥	"		130	115	45	125	25	60	황, 홍, 남 7 7 7	34	"	근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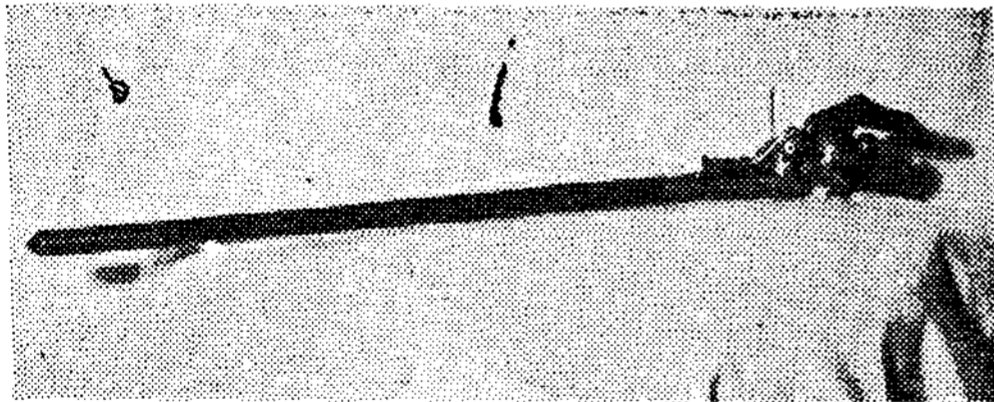
활옷에 着用하는 큰 땡기를 도트락 땡기 또는 朱簾이라고 하는 데 땡기에 달린 속 끈으로 쪽 머리에 감아 위로 느러트려 新婦의 옷 뒤 매무새를 더욱 화려하고도 장엄한 姿態로 돋보이게 하였다. 이것은 붉은 紗를 12cm 나비에 245cm 정도의 길이를 겹으로 들어 중앙을 사진과 같이 제비부리로 접어 두줄이 되게하면 中央部가 일직선으로 갈라진다.

그리고 여기에는 꽃 무늬 또는 砂金袋(石榴) 등의 금박을 화려하게 施文하고, 맨 위에는 石雄黃이나 密花를 달고 錦具의 매미를 중앙의 갈라진 곳을 連結 시켰다. 地方에 따라서는 五色실을 전부 附着物과 같이 縫着 하기도 한다.

또한 앞 땡기는 검정 紗에 붉은 안을 바쳐 5~6cm 나비에 120cm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 도트락 땡기와 같이 花紋을 금박으로 中央과 양끝에 찍고 끝에는 구슬을 10개정도 꿰어 7條를 연결하여 附着한다. 이것을 龍簪쪽에 감아드리우므로써 족두리에서 어깨를 連해 활옷까지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龍 簪

龍의 머리에 입에는 如意珠를 물고 도금을 한 龍簪은 땡기를 감기 위하여 보통 비녀보다 매우



<사진 ⑧>

길다. 근래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대용품도 사용한다.

3) 족두리와 花冠

首飾은 옛 부터 사치가 많았다. 신라 이후 왕실에서는 화려한 금은의 裝飾을 사용 하였음은 유물을 통하여 보더라도 明確한 사실이고 더욱 高麗 때에는 元·明의 賜與服裝 制度로 인한 경향으로 말미암아 首飾은 더욱 심하였던 것이다.

그 영향은 조선조까지 나타났다.⁴⁾

그러므로 조선조 제21代 영조 32(1756)년에는 그 화려한 사치도 制約되어 큰 머리를 족두리로 대신하게 되었다.⁵⁾

이 족두리는 黑色 공단으로 頂蓋는 육각형인데 안으로 약간 들어간 모양이고 또한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약간 안으로 들어간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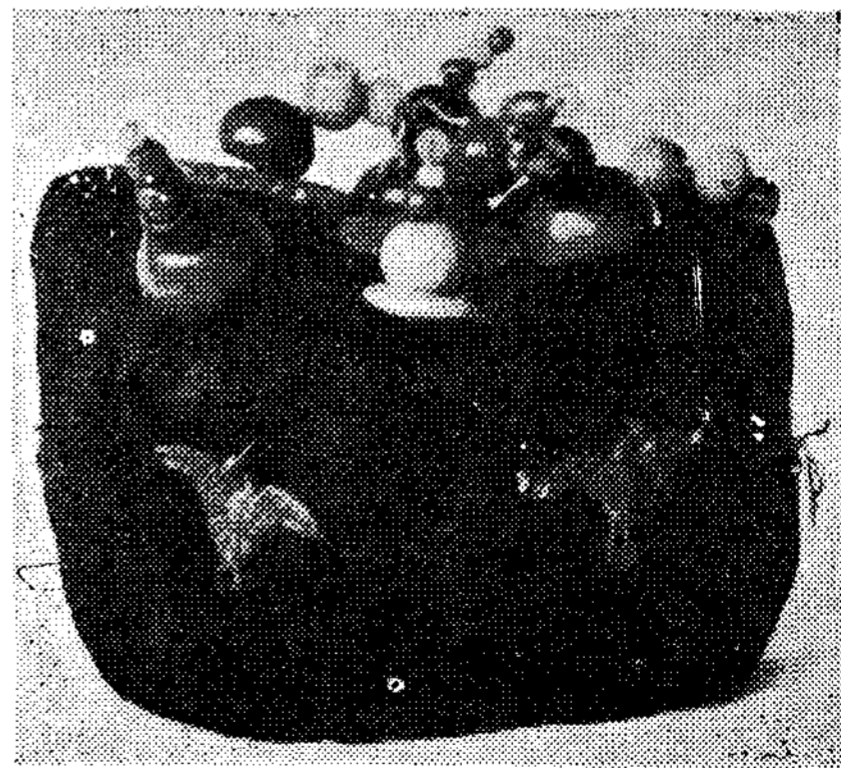
또한 頂蓋 中央과 모퉁이 마다에는 石雄黃을 비롯한 비취 眞珠, 玉 등을 裝飾하였다.

種類로는 칠보 족두리와 민 족두리 조색 족두리 등으로 구분한다.

이 족두리에 대하여 李圭景은 그의 저서 「東國 婦女首飾辨證說」에서 高麗史에 元에서 왕비에게 古古里를 선물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세상에 傳하는 지금의 족두리이다. 이 古古里의 淸을 보건데 이와 흡사하여 訛傳된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다.⁶⁾

또한 이 족두리는 원래 冠帽였으나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는 점차 그 크기가 적어져 冠帽라기 보다는 일종의 머리 장식물화되고 말았던 것이다.

花冠은 족두리와 그 종류가 다르다. 이는 內部와 外部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金, 銀, 石雄黃, 玉, 비취, 진주, 칠보 등을 裝飾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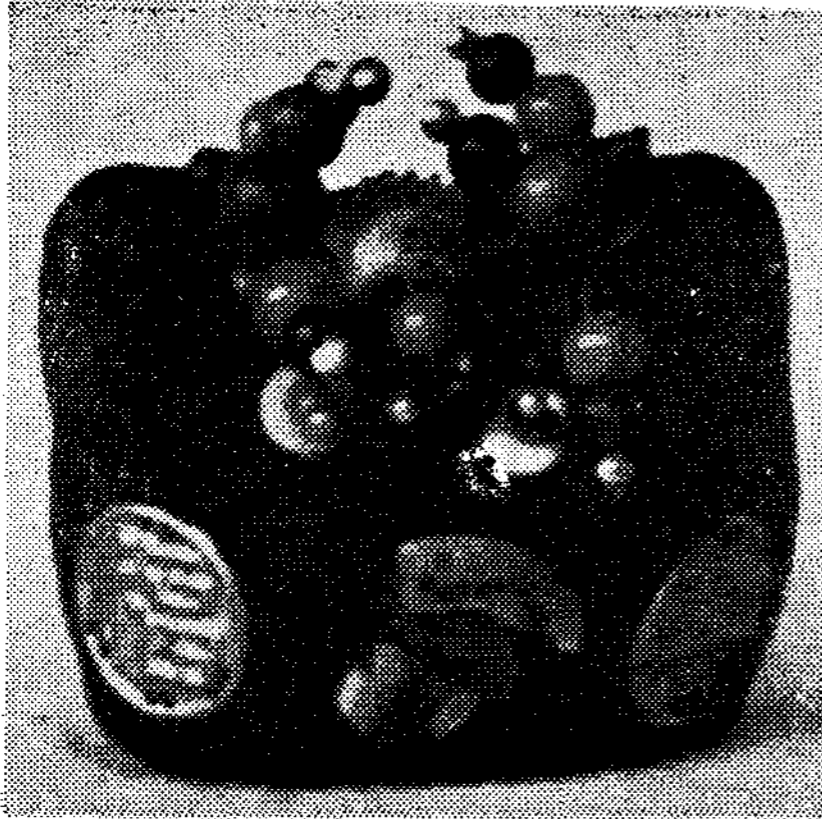
<사진 ⑨>

高 (전; 6cm, 후; 8cm)
幅 (옆; 9.5cm, 전후; 10cm)
쪽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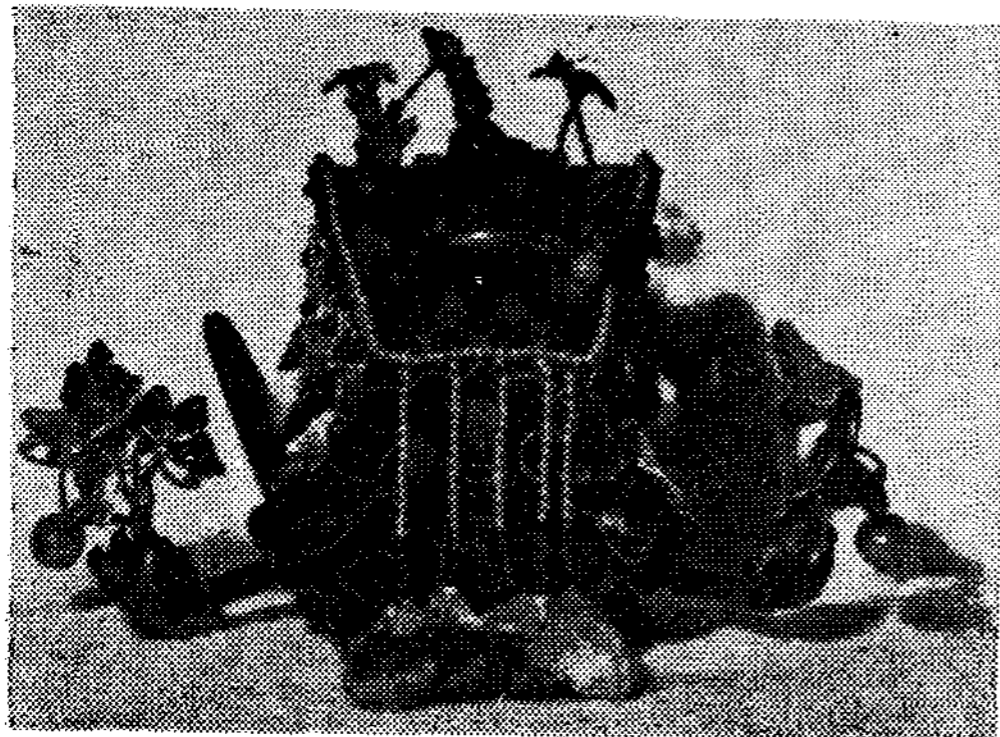
4) 유희경 “冕服에 관한 연구” (한국 문화 연구원 論叢 제22집)

5) 李朝의 刺繡, 수림원 편, 여인의 禮裝 활옷 참조

6) 李圭景(1788-?) 字는 伯揆 號는 五州 그의 저서 중 五州衍文長箋散稿는 유명하며 아울러 조선 후기 實學을 집대성한 大學者로 명성을 떨쳤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금 사물에 대한 서적을 탐독하고 정밀한 考證으로서 학문을 考訂 辨證 하였다.



<사진 ⑩>
 高 (전; 6.5cm, 후; 8cm)
 幅 (밑에서) 9.5cm
 쪽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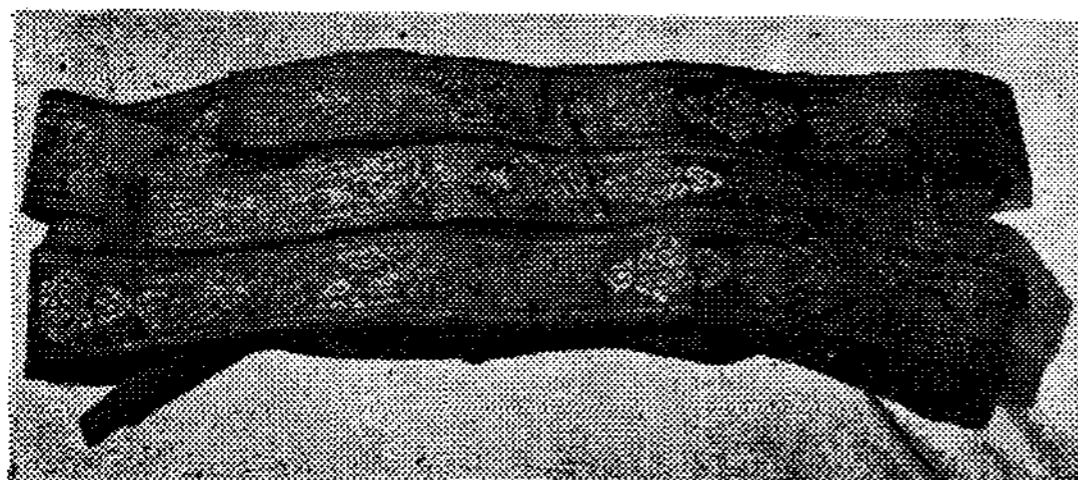
<사진 ⑪>

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비중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본다.

4) 大 帶

붉은 공단에 심을 넣어 만들어진 大帶는 中央에서 50cm 떨어진 곳에 속끈을 단다. 그리고 鳳凰과 주름을 금박한다.

이때 거죽은 길이 전체에 금박을 찍으나 안쪽은 아래에서 80cm 정도만 찍는다. 활옷을 입고 앞 가슴에서 활옷의 양쪽 진동 바로 아래의 끈



<사진 ⑫>

고리에 꿰어 뒤로 돌려서 안쪽에 달린 끈으로 매어 固定 시킨후 大帶를 한번 감아 아래로 느러트린 후 아래 부분에서 뒤로 약 50cm, 윗 쪽에서 다시 한번 감아 느러 트린다.

大帶가 앞 가슴에 오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진동이 넓어지지 않도록 ①의 치수가 적합하다.

7. 刺繡된 무늬의 考察

활옷은 百花의 袍라고도 하는데 이는 도안이 많으므로 表現된 말이다.

앞 뒤 소매에 이르기 까지 많은 도안이 있어 그 刺繡된 도안 마다의 지닌 아름다운 뜻을 알아 보고자 한다.

1) 蓮 花

佛家에서 매우 존중하여 健康 長壽 不死 幸運 君子를 상징하며, 蓮花는 진흙속에 나면서도 더럽지 않으며, 항상 깨끗하게 자라고 앞에 물이나 먼지가 묻지 않아 그 청결함을 받들어(處梁常淨) 佛心은 어디에서나 비친다는 것이다.

蓮을 木, 火, 土, 金, 水에 비유하여 木은 목련, 火는 활련, 土는 토련(토란), 金은 황연 水는 수련으로도 구별 짓는다.

佛敎에서 花座 蓮花臺, 화대 蓮臺라고도 하는데 花臺 보살이 앉은 아래에 연꽃이 있는 것은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 世俗的인 데 물들지 않고 세상 風麗를 여의고 淸淨하여 神力이 資材한 것을 나타내는 데 충분하다 하여 蓮花座를 이루고 있으며 꽃이 피는 과정을 세가지로 분류하여 비유하고 있다.

① 피기 시작한 蓮花

위련고화(爲蓮故華) 위실시권(爲實施權)에 비유하고 부처님이 범화경 화상에서 먼저 權敎로 說할 것은 미숙한 중생을 그 目的인 실교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며 마치 화환이 蓮實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며 처음 성불한 적문의 부처님은 구원 실성의 본문의 부처를 개편하기 위하여 생긴것을 비유하였다.

② 꽃이 핀 蓮花

華開蓮現 開權顯實 등 가야에서 成道한 부처님은 華神이라 제치고 구원의 本佛을 나타내는데 비유하였다.

③ 華落蓮成 廢權立實은 부처님이 근기가 순숙한 중생에게 권교를 폐하고 實敎를 세운 것은

마치 꽃이 떨어지고 蓮實이 成熟함과 같음을 本佛을 成立함에 비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뜻을 믿고 그 본능이 이루어 지기를 訴願한 나머지 보살의 자리를 연꽃으로 가는것도 큰 뜻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을 연화대좌라고도 하는데 연화의 색에는 붉은것 푸른것 흰 것이 있으며 千手觀音은 한손에 靑蓮花를 가지고 있다.⁷⁾

활옷에도 청색 연꽃 繡가 2~3송이 섞여 있다. 이것은 佛家에서 통용되어 오며 또한 유물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2) 牡丹

화려한 이 牡丹은 富貴의 상징으로서 민족 취미의 감상물이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널리 模樣化가 되기까지 이르게 된것은 宋代부터 盛해졌고, 당의 玄宗의 處地를 노래한 李白의 淸平詞 같은 데서 나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중국인은 牡丹을 꽃중의 왕이라 해서 玩賞하기에 까지 이르렀다.⁸⁾

한편 이 牡丹이 문헌상으로 우리나라에 전래되기는 신라 제26대 진평왕(579~632) 때에 당나라에서 목단 꽃의 그림과 더불어 종자를 얻어왔던 것이다.⁹⁾

그 후 이 꽃은 富貴의 꽃으로 생활주변에서 많이 상용되어 왔으며,¹⁰⁾ 특히 이 牡丹을 아껴 무늬화하는 것이 널리 활용 되었음을 유물을 통하여 더욱 알 수 있다.

이는 경북 영주군 태백산 부석사 무량수전 木造 釋迦如來座像의 光背에 表現된 무늬와 강원도 고성군 청평사 極樂段 天井에 있는 牡丹의 무늬는 화려하고도 웅장한 무늬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궁중이나 士大夫에서 또는 王家에서 일반가정에 이르기까지 널리 활용된 이 牡丹은 이조 중엽 이후 도자기나 의상의 무늬로 널리 애용되어 아름다운 여인들의 고운 손길에 어루만짐을 받았다.

3) 鳳凰

鳳凰에 대해서는 雄은 鳳이라 하고, 雌를 凰이라고 하니 雌雄의 구별은 분명있는 것이다. 물론 이 봉황도 이상적인 의도의 구성에 의한 鳥形인 것으로, 淮南子에 의하면

「萬物羽毛鱗介皆祖於龍 羽嘉生飛龍 飛龍生鳳凰 而後鸞鳥庶鳥 凡羽者以次生云云」

라 있는 것을 보니 龍이 飛龍을 낳고, 그 飛龍이 鳳凰을 낳는 순서가 된다.¹¹⁾

이 飛龍에 대하여 周易에서는 飛龍祭天이라 이르고, 飛龍이라 이르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므로 하늘의 思想의 상징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또한 飛龍이 鳳凰을 낳는 것이니까 鳳凰은 조류의 최초의 것이기도 하며 아울러 大宗이기도 하다.

물론 鳳은 至誠의 瑞應鳥로서 표현되는 데 신성만이 理想鳥라 하니까 하늘의 思想을 代表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郭璞의 註에도 鳳凰은 瑞應鳥라 하고 있다. 이새는 6척이나 되는 큰 새라고 한다.

이러한 신비로운 전설을 지닌 鳳凰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유전되는 유물에 의하면 鳳形으로는 낙랑시대 銅器博山爐가 있고, 高句麗 時代의 三室塚玄室壁畫와 遇賢里 玄室 壁畫文, 백제시대의 塼紋, 신라시대의 鳳形瓦當紋, 통일신라시대의 鳳凰唐草紋 등이 있으며, 고려시대의 鳳凰螺鈿箱飾文이 전하고 있다.

한편 공민왕 19(1930)년에는 明太祖의 孝慈皇后가 冠服을 보내왔는데 冠에 鳳이 달린 것이 있고, 이어 그후로 부터는 王妃가 사용한 각종 服裝에는 鳳凰의 紋樣이 있었는데 이는 王室衣服에서는 없어서 안될 만큼 많이 활용되었음은 유물이나 史書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특히 이조에 이르러서는 王宮 正殿 天井에는 王과 侯의 상징인 鳳凰이 조각 되었으며,¹²⁾ 일반 가정에서는 각종 가구를 비롯하여 의류 장신구

7) 운허 왕하, 불교대사전, 동국역경원

8) 渡邊素丹著, 동양 문양사, 제 7장 植物, 제 5절 牡丹條

9) 三國史記 卷5 신라왕가 제5 선덕왕條, “前王時 得自唐來 牡丹花圖并花子”

10) 東國歲時記(外) 京都雜誌 風俗書畫條, p.204.

前略; 공적인 잔치 때는 牡丹을 그린 큰 평풍을 이용한다; 下略.

11) 前揭 註⑧ 제 3장 鳥形 제 1절 鳳凰條 鸞條 참조

12) 昌德宮 仁政殿 「鳳」 광해 3년(1611) 재건

昌德宮 宣政殿 「鳳」 효종 4년(1653) 중건, 昌慶苑 明政殿 「鳳」 광해 8년(1616) 재건

도자기 서예 등에 까지 그 紋樣이 다양하게 활용되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龍, 龜, 기린과 더불어 四靈으로 일컬어 오고 있는 것으로 활옷을 입을 때 속에 있는 다홍치마에 금박한 紋樣도 鳳冠을 찍는다.

4) 鴛 鴦

활옷에 鴛鴦 한 쌍이 잔잔한 물위에서 속삭이는 듯한 도안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游水類에 속한 물새로서 모양은 오리와 비슷하나 대부분 꽃과 같은 水草에서 한쌍을 이루어 노는 장면 등으로 表現 되었으나 多情한 夫婦의 상을 비유한 것으로 본다.

5) 蝴 蝶

이조 시대 特히 가구류의 금구 장식등 大衆的인 民藝品에서 볼 수 있으며, 吉祥的인 뜻을 지니고 있으나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나비를 牡丹과 더불어 繡 놓은 것은 꽃에는 나비가 따른다는 自然의 造化를 이루고, 아름다운 女性에게는 男性이 따른다는 뜻을 나타낸 인간 本연의 心理를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6) 十長生

10가지의 高貴함을 바탕으로 오래 살든지 없 어지지 않는 물건을 상징하여 日, 雲, 鶴, 松, 竹, 鹿, 石, 水, 龜, 不老草를 즐겨 生活에 신 조로 삼았다.

이와 같은것은 가구의 장식이나 칠기 木工藝 石製品 심지어는 베게모의 刺繡에 이르기 까지 生活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찾아 볼 수 있었으 나 그 소박하고 아름다운 生活哲學을 엿 볼 수 있다.

특히 활옷의 繡 도안 아래부분에 물결을 도안 화하여 영원하고 맑음을 나타냈고, 그 위에는 바위와 鴛鴦 등으로 조화를 이룬 가운데 청색과 홍색의 연꽃이 피어있고 한쌍의 鶴이 마주보고 있으며 그 위에는 牡丹으로 메워진 것으로 아름다운 옷이다.

8. 맺음 말

우리 나라는 東洋에서도 깊고 넓은 예술과 文化의 바탕을 오랜 역사 속에 담고 있다.

우주 萬相을 보고 崇高함을 찾았고 自然과 더불어 創造와 忍耐를 生活의 신조로 藝術이 탄생 하고 崇高한 思想과 슬기를 지닌 국민성으로 일 상생활에 反映시켜 衣服에서도 그 자취를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활옷의 紋樣을 살펴 볼 때 그 어느 하나도 막연한 도안은 없다.

모두 우리들이 염원하고 있는 미래의 소망을 찾아서 이루어진 것 뿐이다. 100여년전의 것을 비교하여 보면 繡法이나 紋樣이 모두 비슷하다.

궁중 禮服 가운데서도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활옷은 아직도 신부의 폐백복으로 着用해 오고 있으나 이 옷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由來와 부속품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 本 拙文에 활옷에 대한 全般的인 것을 다루어 옛 풍속 本연의 뜻을 파악하고 애착하여 우리의 풍습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重要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옛것은 옷감이 해어지면 繡 놓은 곳만 도려서 다른 감에 몇번씩 옮겨 使用하고 안에 광목을 바치고 한삼에도 수놓은곳만 남겨두고 창호지를 대어 시쳐놓는 것과 근래것 보다 치수가 적은것을 볼 때 비단의 品貴로 인한 것이라 믿어진다.

刺繡 紋樣에 있어서는 佛敎에서 받아들인 생활철학으로 富貴 多男 長壽에 대한 염원을 二姓之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과 성의를 다하여 받들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요즈음 혼례 儀式은 他意에 의해서 形式的으로 흐르는 例를 볼 수 있다.

우리는 精神的인 것을 바탕으로 건전한 民族主體性을 가지고 우리의 것에 대하여 그 뜻을 높이 받들고저하는 데 義意가 있다.